

광주디자인센터, 지역기업 수출 활성화

'산업화 프로젝트'로 해외진출 도와 시제품부터 양산·마케팅 일괄 지원 부가가치·매출 올리고 일자리 창출

광주디자인센터와 광주시가 지역 디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산업화디자인사업이 해외 수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디자인센터에 따르면 '2019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가 제품의 시장경쟁력과 매출향상, 해외 수출 등에서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는 혁신적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양산, 마케팅을 일괄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해와 올해 ㈜드림씨엔지(대표 송창금)의 노면청소기 등 스마트가전, 생체의료 소재부품 중소기업에 제품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다.

또 ㈜링크웍스(대표 최용원)는 플라즈마

소속기기 개발을 마치고 양산 단계에 들어가 각 의뢰시설 및 학교 등에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

(주)이레그린(대표 강재경)은 UV 살균기능을 갖춘 공기청정 식중독 알리미는 한국외식업협회 등과 일부 투자 계약을 끌어내기도 했다.

개발된 제품들은 해외 시장에서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주)드림씨엔지는 말레이시아에 4만달러 상당의 노면청소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데 이어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노면청소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주)현성오토텍(대표 김창수)도 필리핀 유통업체와 13만달러 규모 라면조리기를 수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확대하기 위해 광주디자인센터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광주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에어가전, 디자

인 등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제조 및 서비스 산업군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판로 다양화를 위해 개최된다.

또 해외 바이어와 지역 기업 간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한편, 지역 제조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의 플랫폼 역할을 확립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광주디자인센터는 지역 제조기업의 경제적 성장의 기반을 확립해 나가는 플랫폼으로 행사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한편 지역 산업체의 현실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성호 원장은 "지역 디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화디자인사업이 최근 남다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며 "해당 사업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지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광주지방국세청은 5일 추석을 앞두고 자매 결연 전통시장인 광주 무등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광주국세청,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자매결연 무등시장서 행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은 5일 추석을 앞두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광주 주월동 무등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박석현 청장을 비롯한 광주국세청 간부·직원들은 무등시장 상인회 임직원들과 송편빚기 행사와 오찬을 함께 한 후 장보기 행사를 통해 시장 상인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격려했다. 직원들과 함께 빚은 송편은 상인회를

통해 10여 곳의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 상인들을 위한 납기연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등 다양한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석현 광주청장은 이날 결혼소외가정 아동·노인 보호시설인 신애원과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한 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hta2000@srb.co.kr



신선한 샐러드 좋아요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 지하 1층 푸드플라자 '신선한 주방'에서는 당일 생산한 수제 샐러드와 샌드위치, 디저트 컵 등을 판매하고 있다. 또 복숭아, 자두, 딸기 등 제철에 나오는 조각 과일을 넣어 식감을 살린 리얼 유유도 함께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시민 1인당 개인소득은 얼마?

통계청 2017년 기준 1천893만원 전국 평균 1천920만원 보다 낮아 전남은 1천704만원으로 '최하위'

광주 시민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총생산도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5일 '지역소득통계 2015년 기준 개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7년 지역소득'(기준년도 2012년) 결과를 2015년 기준으로 바꾸고, 경제총조사 및 인구·주택총조사를 적용해 보정한 것이다.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 평균 1인당 개인소득은 1천9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1인당 개인소득은 1천893만원

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 울산, 세종, 대전에 이어 높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전국 평균 대비 98.6% 수준에 그쳤다.

개인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2천223만원이다. 서울시민이 광주시민보다 331만원 가량을 더 버는 셈이다.

이어 울산(2천195만원), 세종(2천140만원)과 대전(1천93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은 조선업과 자동차, 중공업 등 주요 제조업의 거점으로 고임금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다수 거주해 지난 2010년부터 줄곧 1인당 개인소득 1위를 기록해왔지만 제조업 침체로 2017년 서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은 1천704만원으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다 무려 520만원이 낮았다.

이어 전북(1천706만원), 경북(1천743만원)

순으로 소득이 낮았다.

개인소득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2017년 시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천84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96조8천억원 증가했다. 경기도가 451조4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이 404조1천억원, 충남이 115조6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 지역내총생산은 37조7천억원으로 17개 지자체 중 제주(20조), 세종(10조6천억원)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제주와 세종이 특별자치구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하위다. 광주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에 불과했다. 전남 지역내총생산은 73조7천억원으로 전국총생산에서 4.0% 비중을 차지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주택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추대될 듯

정원주(사진) 중흥건설 사장이 차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을 차기 광주전남도회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오는 10월 22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역대 광주전남도회 회장들은 관례에 따라 경선이 아닌 추대 형식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다른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 정원주 사장은 현 박재홍 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회장)에 이어 오는 11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중흥그룹은 34개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자산총액은 9조5천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계열사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이 있다.

박석호기자 hahta2000@srb.co.kr



"65세 이상 기초연금 신청"

국민연금공단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장준영)은 오는 15일까지 기초연금제도 안내와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가족과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을 활용해 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통요충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지역본부는 실제로 지난 5일 서구 양동시장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캠페인과 전통시장 이용 홍보활동도 벌였다.

올해는 전년도 기초연금액 인상(20만원→25만원)에 이어 소득하위 20% 이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인상(25만원→30만원)되면서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철기기자 doul18309@srb.co.kr

광주·전남 상장사 주가 상승 최고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금호산업업 '톱' 코스닥 고려시멘트 34% 급등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상장종목 중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금호산업업이고, 코스닥시장에서는 고려시멘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밝힌 '2019년 8월 광주·전남지역 시장 및 거래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친 주식 거래량은 전달보다 11.05%, 거래대금은 전달보다 10.09% 감소했다.

거래량은 4억4천231만주에서 3억9천345만주로 4천887만주 줄었고, 거래대금은 2조4천395억원에서 2조1천933억원으로 2천462억원

줄었다.

지역상장법인의 8월 시가총액비중은 전체상장법인의 시가 총액 대비 1.53%로 전달 보다 0.06% 포인트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시가 총액이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금호산업업, 부국철강, 대우에이텍 등의 순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 금호산업업은 7월 5만2천500에서 8월 5만7천600으로 9.71% (5천100원) 상승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역 상승률 상위 종목은 고려시멘트, 남화산업, 대신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승률 1위인 고려시멘트는 7월 2천365에서 8월 3천170원으로 34.04% (805원) 급등했고, 남화산업도 6천790원에서 7천980으로 17.53% 올랐다.

박석호기자 hahta2000@srb.co.kr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5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수혁신지원센터 건립현장 등 관할 사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산단공 광주·전남본부, 현장 안전점검

보호장구 착용 등 실태 파악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행만, 이하 '산단공')는 5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수혁신지원센터 건립현장 등 관할 사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의 날'을 겸해 실시됐으며, 이날 근로자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착용 실태, 건설장비 관리 실태, 비계 설치 적정성 등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공사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제13호 태풍 '링링' 복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사장 주위 펜스 등 태풍 취약부분

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으며, 이후 건설사업관리단(CM) 및 시공사가 참여한 건설현장 안전 무사고 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단공은 연말까지 본부 관할 내 위치한 구조고도화 환경개선편드사업의 건설현장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전문가 및 안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행만 본부장은 "반복적인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